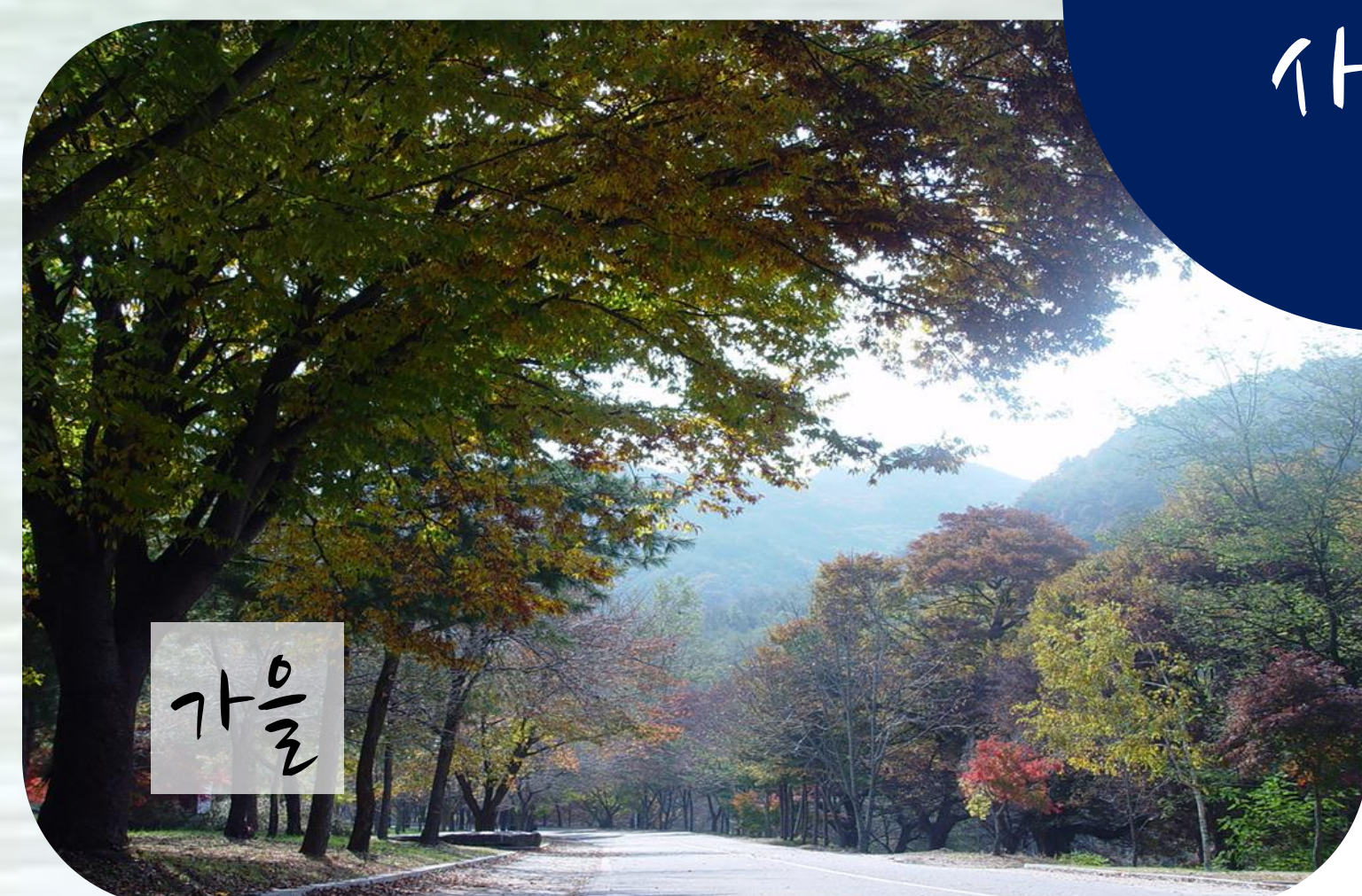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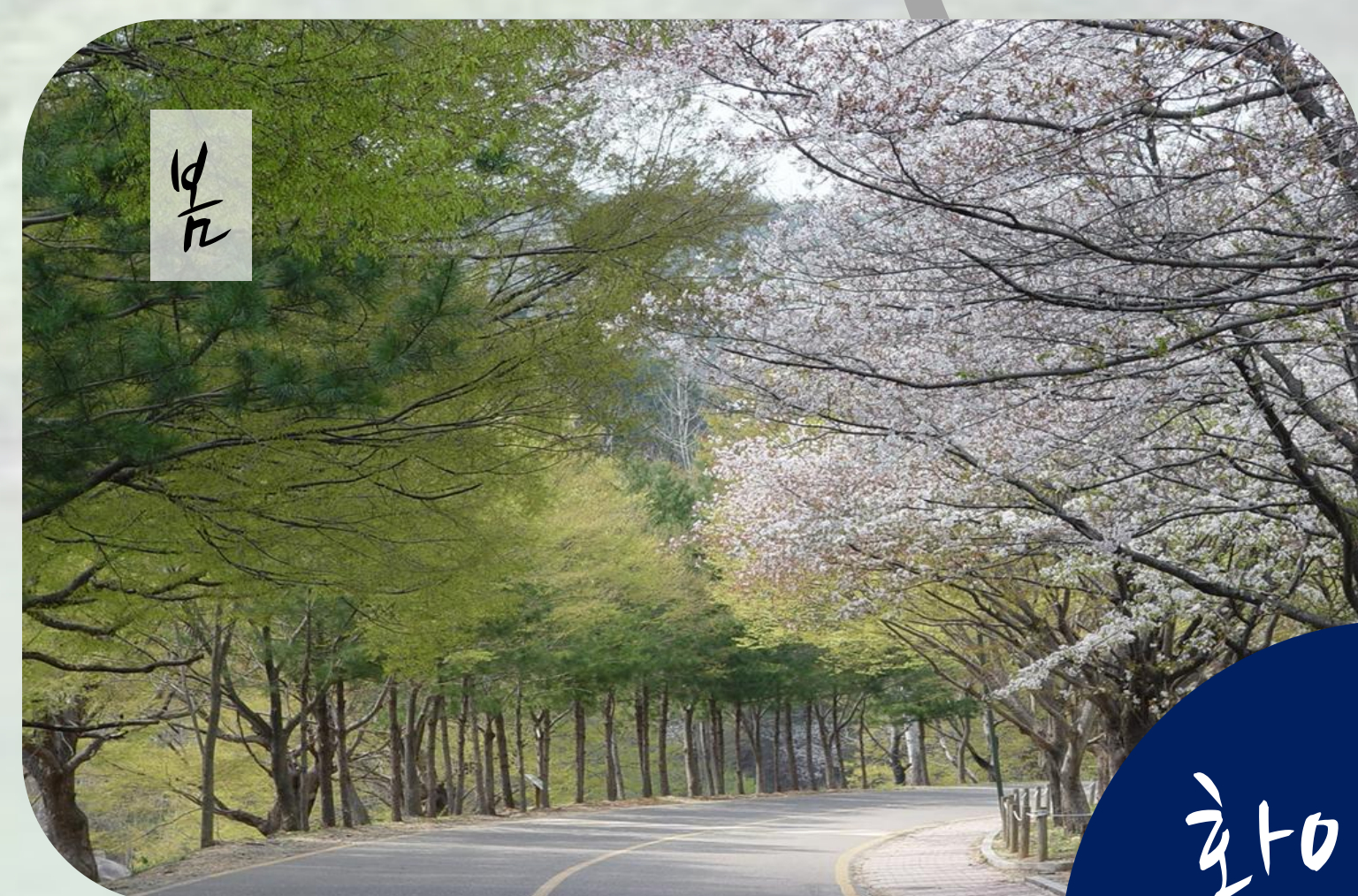




왜 화양동이라 불릴까요?



화양동의 사계

조선시대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화양계곡은, 원래 황양나무(회양목)가 많아 황양동이라 불렸으나, 선생이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와서는 중국을 뜻하는 중화의 화(華)와 일양래복(一陽來復)의 양을 따서 이름을 화양동으로 고쳤다고 합니다.